

일본 브로일러산업의

현황과 전망 (3)

(편 집 부)

4. 브로일러 산업에서 발생한 변화

5) 수급 조절

브로일러산업에서의 수급조정은 근년 더욱 중요한 것으로 되고 있다.

생산도 연중으로 되었고 계절적인 수요의 변동과 생산이 잘맞아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고, 수요와 생산과의 공급량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내의 냉동품시장이 태국산의 수입으로 압박을 받고 지금까지의 일본 최대의 냉동품시장이었던 북해도가 냉장품유통시장이 되고 수급의 조절이 곤란하게 되는 면도 나타나고 있다.

점차 수급조정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보아도 수급에 맞추어 생산을 한다는 것은 수요의 가치가 있을 때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때, 생산이 기상조건 등으로 변동할 때 등의 요소가 있어 한층더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조절하여 적절한 가격수준을 실현시키려는 것은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쪽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가격이 높거나 싸져나한 변동가격도 불필요할 뿐아니라 브로일러산업에서

는 분명하게 해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경제이론에서는 경쟁상태가 유지되기만 한다면 질서는 스스로 확립되어 간다고 한다. 경쟁상태하에서도 불균형이 생길 때에는 가격의 변동이 생기고 과잉생산된 물건의 가격은 전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은 물건의 생산을 감퇴시킨다. 반대로 공급되는 것보다 더욱 많이 수요되는 물건은 그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것이 그 생산을 자극하여 균형이 스스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확립된 질서는 가능한한 정당한 것이라고 하는 통론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브로일러산업에서는 질서확립이 늦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과잉상태가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의 감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최대의 이유는 인테그레이타가 (INTEGRATER) 이 산업에 개입도가 너무 심하여 그랬을 것이다. 사료의 취급을 중심으로 하여 인테그레이타는 브로일러의 모든 부문에 개입하고 있으며 브로일러생산이 다소 과잉경향을 보였다고 해서 생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다. 생산의 삭감은 브로일러시장을 정상화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료관계의 모든 시설을 휴무상태에 빠지게 하고 계열부화장, 종계장의 가동

울을 저하시킨다. 사업전체에서 확실한 이익이 없으면 생산의 삭감을 인테그레이타가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생산을 삭감함으로써 장래 확실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인테그레이타는 생산의 삭감을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은 이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장래 이렇게 되리라는 확률이 극히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는 있어도 누구도 확실하게 앞날을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테그레이타와 같이 장래를 확신할 수 없는한 누가 생산삭감에서 생기는 이익의 복잡한 조정을 하려고 하겠는가? 한다면 새로 시작하는 브로일러업자의 수를 줄일 수는 있어도 인테그레이타가 자진해서 기존규모를 삭감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다음은 이와같은 인테그레이타 개입의 결과 일반적으로 브로일러의 사육생산에 대하여 취해지고 있는 가격보장조직에도 생산이 조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가격보장의 조직은 통상가격이 높을 때에 적립하고 낮을때에 하한선을 보장하는 사육생산자의 경영을 안정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브로일러산업에서 INTEGRATER에 의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고정가격으로 매상하는 방식은 이와는 분명하게 다르다.

고정가격 방식은 사료의 취급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취해지고 있는 반면 사료취급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조정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이 증가하는 과정이라면 사료부문에서 이익이 보통 증가하므로 이 조직은 문제없이 활동하지만 생산이 감소되는 과정에서는 생산의 감소를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이 조직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최하라도 현상유지가 아니면 인테그레이타의 고정가격으로 매상방식은 잘 활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태에 브로일러산업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 대목의 중요주체는 수급조절기능을 누군가 하

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스스로 명확해지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재고를 보유하거나 간접적으로 조절경비를 부담하고 제 3자에게 시키는 것은 별도이고 인테그레이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수급조절을 실시하는게 당연한게 아니겠는가. 그러나 브로일러산업의 현상은 그와같이 되어 있지가 않다. 얼마 안되는 계통농협이 연초 수요과소 시에 생산량의 감소나 공급량을 조정하기도 하고 하는 정도이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6) 가격형성

브로일러의 가격형성은 산업의 역사가 짧아도 불구하고 수많은 변천을 해왔다. 도계도 체만의 시세형성에서 도계정육 양쪽의 변화, 정육의 정가조절, 정가비율 조절 변화, 정육시세의 주 1회 신문계재 등의 변화, 전국농협중앙회에 의한 동경의 정육시세 발표 등은 그간 하여온 주된 변천의 순서였다.

이와같이 가격형성방법이 변화되어온 것은 유통상품의 비중의 변화와 브로일러산업의 내외적 발달로 각 부문간의 힘의 관계변화 등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도 바람직한 가격형성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지지도 않고 관계업체의 의논만 분분하다. 그야말로 고민하는 브로일러산업의 자태를 비쳐 보이는 것만 같다. 표면적으로는 여하튼간 하주회사가 시세발표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가격형성의 주체가 변하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에는 명실공히 하주회사가 가격형성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못하다.

하주회사는 그 경영기반의 약체화나 힘의 관계도 큰 변화에 따라 가격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수급을 가격으로 조정할 수 없는 브로일러 산업의 현 상황속에서 하주회사가 독립적으로 가격형성을 해나가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리고 수급조절기능의 거의 전부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하주회사가 가격형성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을 원한다 하여도 무리라고 생각된다. 큰 도매점의 힘의 대결에 의한 거대한 생산자 등은 하주회사의 발표하는 시세에 의거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게 그 시세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에 의한 가격형성은 지금까지 시세발표에 협조해온 하주회사에 비해보면 성역을 침입한 것이고, 여러가지 의논도 많았지만 실제 문제로서 하주회사가 1년이면 1년 장기계약하에 물건의 구입을 계획하지 않으면 농협중앙회가 자기손해로, 자기계 계열생산지에서 생기는 생산량과 판매량의 값을 조정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5. 브로일러의 수입

브로일러 수입은 63년 이전에도 있었으나 수량적으로는 적고 63년에 EC의 불경기로 미국이 소비시장으로서 일본에 파고들어온 결과 63

년의 수입량은 전년도의 10배 이상인 3,500 톤으로 올랐다. 그 당시 일본의 계육생산량은 약 14만톤(지육으로) 이었는데, 그중 브로일러가 약 5만톤으로 계육생산량의 약 3%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는 64년에 국내 가격의 폭락을 자초하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64년에 관세율 10%에서 20%로 끌어 올렸으나 수입량은 감소하지 않고 64년에는 6,000톤이 수입되었다.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여 73년, 74년, 75년에 다소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76년부터 재개되기 시작하여 79년까지 전년 수입량을 10% 이상 상회하는 물량이 수입되었다. 80년에는 증가율이 둔화 되었으나, 81년에는 98,000톤 (전년대비 140%)으로 증가하였다.

육계의 주 수출국은 수입량이 대폭 늘어난 63년은 미국이 96%를 차지하고 나머지 4%가 덴마크, 중국이었으나 70년에는 미국이 41%, 헝가리 20%, 중국 15%, 불가리아, 덴마크 등으로 수출국수도증가하여 수입량은 매년 변화되고 있다. 81년에는 98,000톤으로 미국이 60%를 차지하는 59,000톤, 다음이 태국의 25%로 25,000톤, 중국이 14% 13,000톤으로 되어있다. 81년에 25,000톤을 수출하고 있는 태국에서는

그림 9. 계육수입량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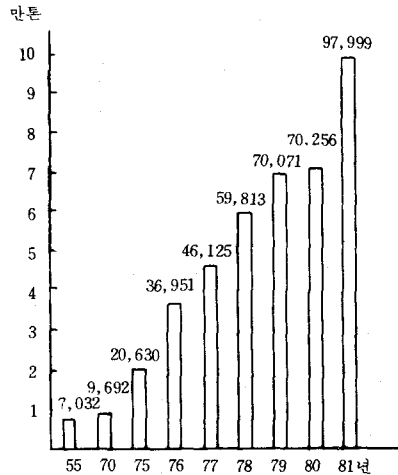


그림 10. 육계의 국별 수입량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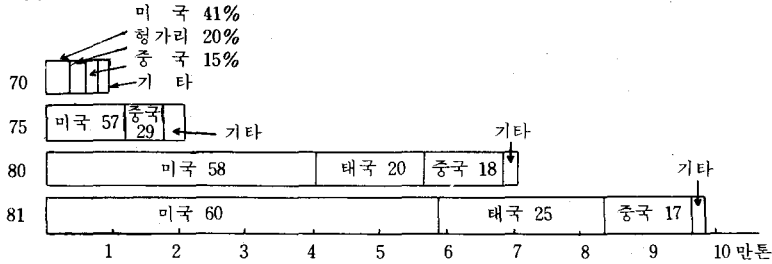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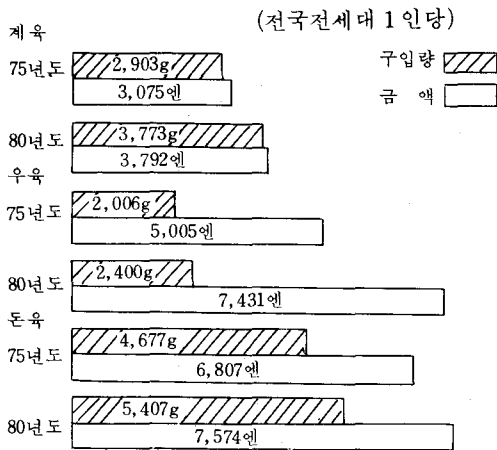


그림 11. 가계소비추세



73년에 처음으로 수입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금후의 동향이 주목된다.

6. 계육의 소비동향

정부의 가계조사통계에 의하면 전국 전세대 1인당의 계육구입량은 80년도에 3.8kg로 79년도에 비교하여 3%가 증가했다.

74년도부터 79년도까지는 5% 전후로 증가했으나 80년도에는 다소 둔화되었다. 구입금액은 도매가격의 상승도 있었지만 79년도를 6% 상회하는 3,792엔(₩)이다.

구입량과 구입금액을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비교하여 보면, 구입량에서는 쇠고기는 79년도, 80년도는 다같이 전년도를 하회하는 2.4kg이고,

돼지고기는 79년도에 4%가 신장했으나 80년도에는 1% 증가에 그치고 말았다. 구입금액은 쇠고기는 80년도는 7,341엔(104.6%)이고, 돼지고기는 7,574엔(103.1%)이었다.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의 구입량은 75년도와 비교하면 닭고기 30%, 쇠고기 21%, 돼지고기 49%이던 것이 80년도는 닭고기 32%, 쇠고기 21%, 돼지고기 47%로 돼지고기가 다소 감량되고 닭고기가 증가했다. 구입금액으로 보면 75년도에는 닭고기 20%, 쇠고기 34%, 돼지고기 46%로 80년도는 닭고기 20%, 쇠고기 40%, 돼지고기 40%이고, 구입량에서 금액을 제하고 100g당으로 계산하면 닭고기는 75년도의 106엔에서 80년도 101엔, 쇠고기는 250엔에서 310엔, 돼지고기는 104엔에서 140엔으로 닭고기, 돼지고기가 싸지고 쇠고기가 대폭 오르고 있다.

지역별 1인당 구입량을 80년도에서 보면 닭고기는 큐슈가 6kg로 많고, 주고꾸가 4.1kg, 시고꾸가 4kg로 되어있고, 구입량이 제일 적은 데가 북쪽의 2.4kg이나, 큐슈, 주고꾸, 시고꾸 다같이 79년도에 비하면 평행선의 경향에 있고 관동, 동해 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구입량에 대하여 보면 쇠고기는 긴끼지방이 4.5kg, 시고꾸 3.7kg, 주고꾸 3.6kg이며, 제일 적은 데가 홋카이도로 0.5kg이다.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간도 6.7kg, 홋카이도 6.7kg, 도호꾸 5.9kg이며 시고꾸가 3.3kg로 제일 적다.

지역에 따른 식육구입량의 차이는 닭고기는 주고꾸에서, 쇠고기는 긴끼에서, 돼지고기는 간

그림 12. 닭고기를 택한 이유

연도	구하기쉬워 (%)			기타 (%)
	맛있어서	습관되어	가격이싸서	
73년	22.1	29.3	46.2	2.4
79년	14.2	34.5	47.8	3.5
80년	24.8	34.1	39.4	1.7
81년	20.2	32.9	44.0	2.8

또이북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구입량이 많은지역과 적은 지역에서는 닭고기는 2.5배, 돼지고기 2.1배, 쇠고기는 9.2배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소득의 계층별로 구입량을보면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다같이 소득이 높은 층의 구입량은 많으나 소득이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과의 구입량의 차이는 쇠고기 1,286g, 돼지고기 1,243g, 닭고기는 664g으로 닭고기는 어느 계층에서도 별차이없이 소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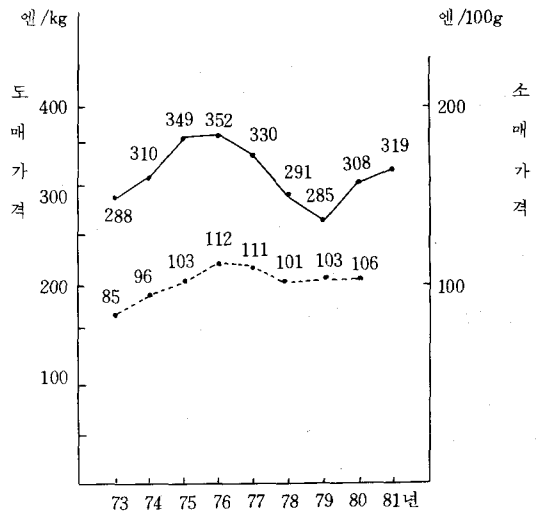
축산진흥사업단의 조사에 의한 식육소비동향 조사에 의하면 닭고기를 선택하는 이유로서 '가격이 싸다'가 제일 많고, 다음은 '오랜동안의 습관'의 순이고, 78년에서 81년까지의 순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쇠고기는 '맛이 좋아서'가 압도적으로 많고, '오랜 습관적인 고기'가 다음으로 많았다. 돼지고기는 가격이 싸고 오랜 습관이라는 반응이 해가 바뀌면서 변하여 '맛있다'가 제 3위로 되었다. 닭고기나 쇠고기는 맛, 돼지고기는 간또 이북의 식생활습관에서 가격이 선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7. 브로일러의 가격

브로일러의 도매가격은 65년 이후 72년까지는 210엔에서 260엔으로 불과 50엔차로 비교적 안정세로 변천하여 왔고, 73년 후반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과 오일쇼크에 의한 생산조건의 악화 등에 의해 73년에는 288엔이 되었으며, 74년도는 310엔, 76년도에는 352엔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77년 후반에 와서 엔화상승, 해외 곡물수급의 안정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대폭적 하

그림 13. 브로일러가격 변천



향으로 출하마리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가격만 약세로 변천하고 78년전반에는 260엔대까지 떨어져 후반에 일시 만회하였으나, 79년 전반도 250엔대에서 변천했다. 이후 79년의 석유가 인상, 해외곡물사정 등에 의해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다시 300엔대로 회복했다.

80년 후반부터 브로일러생산량은 신장하여 350엔대까지 올랐으나 81년에는 전년대비 104%의 319엔이었다. 브로일러는 모이주기 시작하여 2개월이면 제품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생산량의 증감조절이 쉬우며, 사료비가 생산비에 비하여 비교적 높고 그 사료대는 거의가 해외 원료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곡물시황에 좌우되기 쉽고, 가격변동의 영향을 받아 생산자에 대해서 생산코스트에 적합한 금액을 보증하는 때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상방법으로는 최저보장가격을 정해놓고 실시간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 생산코스트에서 산출한 일정가격으로 매상하는 방법, 소득보증방식 등 생산자와 도계처리장, 경제연합회, 인테그레이터 간에 정해지고 최저가격보장방식이 많이 취해지고 있다. 이 방법은 보상금

을 지불하기위한 자원의 적립에 생산자 및 관계자가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정해진 기준가격(최저보장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보상하고 있다.

이와같이 생산자가 출하한 브로일러에 대해서 보장제도 등은 있으나 수급에 적합한 생산체제의 확립이야말로 금후의 브로일러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끝으로 브로일러산업은 경제환경의 급격한 악화나 기술적인 변화 등의 영향을 받아서 수년간 현저한 변동을 가져왔다.

특히 하주기구의 산업중에서 점유하는 지위는 그 기능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금후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면 강

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소 과언이라고는 생각하나 굳이 말하자면 몇개의 하주회사는 경영의 존속까지도 곤란해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생산지에도 말려 들어가는 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큰 변화가 브로일러산업에서는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도 그다지 먼 장래의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길어도 3~4년내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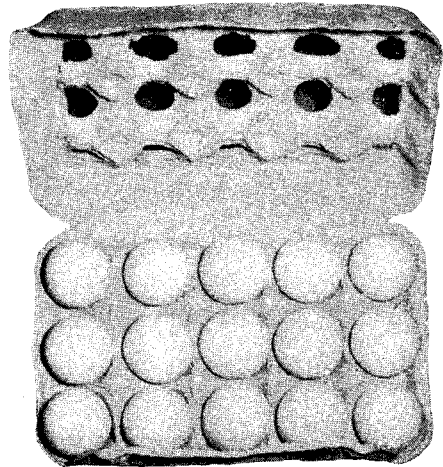
브로일러산업에 있어서의 상황과 장래에 대하여 너무나 비관적인 생각만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 브로일러산업의 역사중에서 시시비비가 검증될 사항이다. <끝>

위생적인 종이난좌를 사용합시다

- 10개들이 난좌 > 가정용
- 20개들이 난좌 > 가정용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 (성남) 43-1042, 41-0171